



## 보고 듣고 말하는 거 모두가 다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과 봄은 많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살기 좋은 때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덥고 춥고를 떠나서 그렇게 봄을 기다리는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한마디 얘기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원심사상(圓心思想)이란 돌이 아닌 사상이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귀함된, 우주와 일체제 불과 우리들이 돌이 아니게끔 된 사상이죠. 하다못해 벌레 하나도 빼놓지 않는 사상이죠. 또 법사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업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심사상으로써 이끌어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몸 안에도 나 아닌 내가 꼭 차 있습니다. 그럼 내 몸 하나 가지고도 원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그렇게 진화해서 나오면서 거들거들 형성된 우리들이, 나와 내가 돌이 아니며 또 나까지도 공했으니 우리가 그대로 원입니다. 원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원이 세워졌다는 얘깁니다. 우리 몸뚱이를 고정됨이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움직여 리게 하는 그 기동이 있는가 하면 몸은 그 기동을 끼고 돌아가는 수레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몸과 자기 근본의 기동이 어떻게 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끌어 드리는 그 사상은, 사상이라는 말도 떼어 버려야 되지만 말입니다. 원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법사상은 이게 틀리고 저게 옳고, 내가 나쁘다 내가 좋다 이런 것이 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사상은 그대로 업사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자기 근본이 바로 원사상이죠. 말하자면 자기 불성 기동에 수레가 같이 끼고 돌아가니까 원심력을 기르기 위한 방편으로써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상의 그 안되고 되고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잘된 거는 잘된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안되는 것은 '너만이 되게 할 수 있다.' 하고 또 거기 놓고, 한군데다가 집중해서 다 거기다 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사상과 원사상이 돌이 아닌 까닭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가 업을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대신

죽여 줄 수도 없거나 아파 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대신 못 해 줄 것이고, 똥 누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도 대신 못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와서 망망대해를 지금 홀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입니다. 그대 원사상을 알아야 하겠기에 지금 돌이던 도리를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즉 가만히 있으면 원사상이요, 생각을 하면 법사상이요, 또 몸을 움직여 봤다 하면 수레가 돌아가듯 철 사이 없이 돌아가는 끝없는 진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중세계지만 하세계, 중세계, 상세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써 그 삼세계를 다 놓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놓는다면 다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낄 때는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입력된 게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지면서 그 세로이 입력 들어가는 게 바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부해 나갈 때에는, 이 이름 저 이름 찾거나 이 형상 저 형상 찾지 말아야 하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들

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렇게 들고, 그러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걸 들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인공에다가 '아, 잘못된 것도 너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좋게 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는 겁니다. 책을 보더라도 내 주인공이, 즉 말하자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보게 되는 거지 내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책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송장이 되지.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두가 다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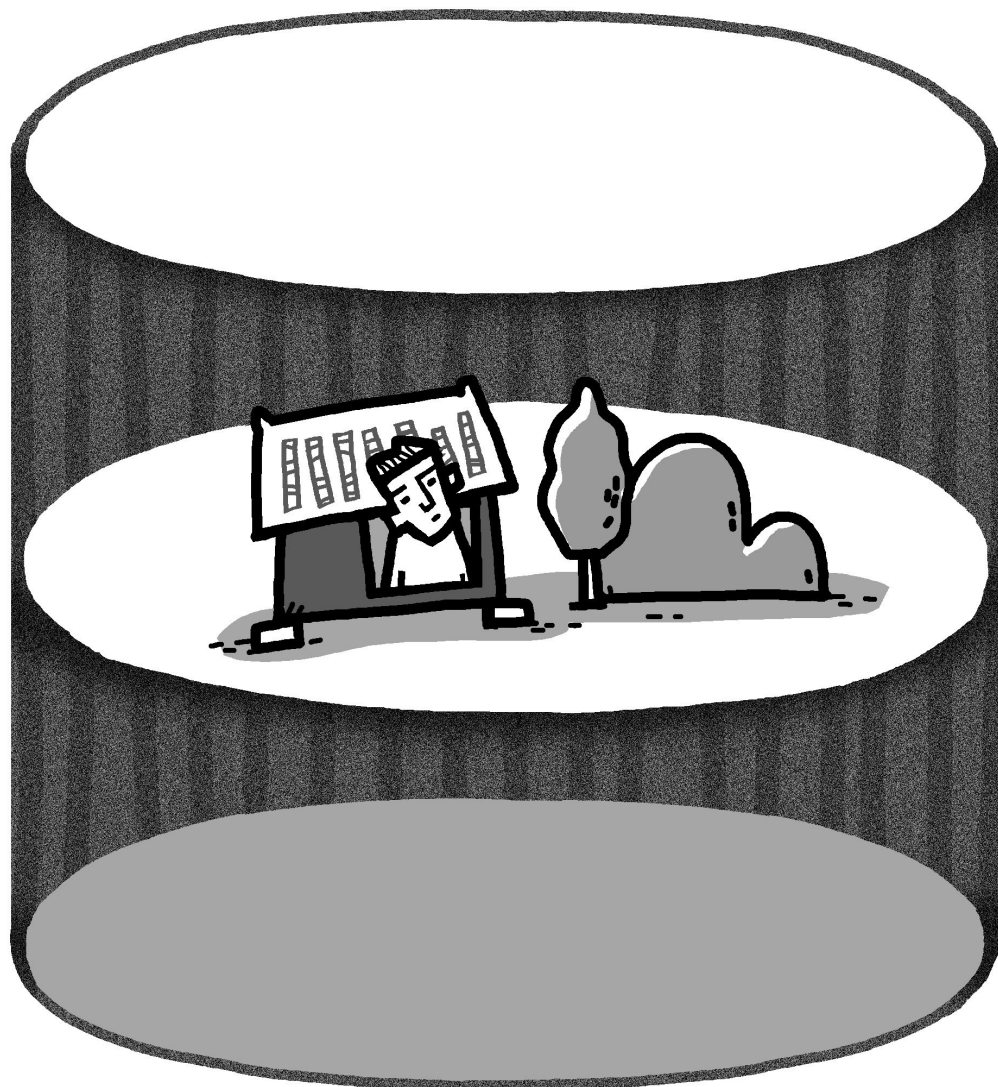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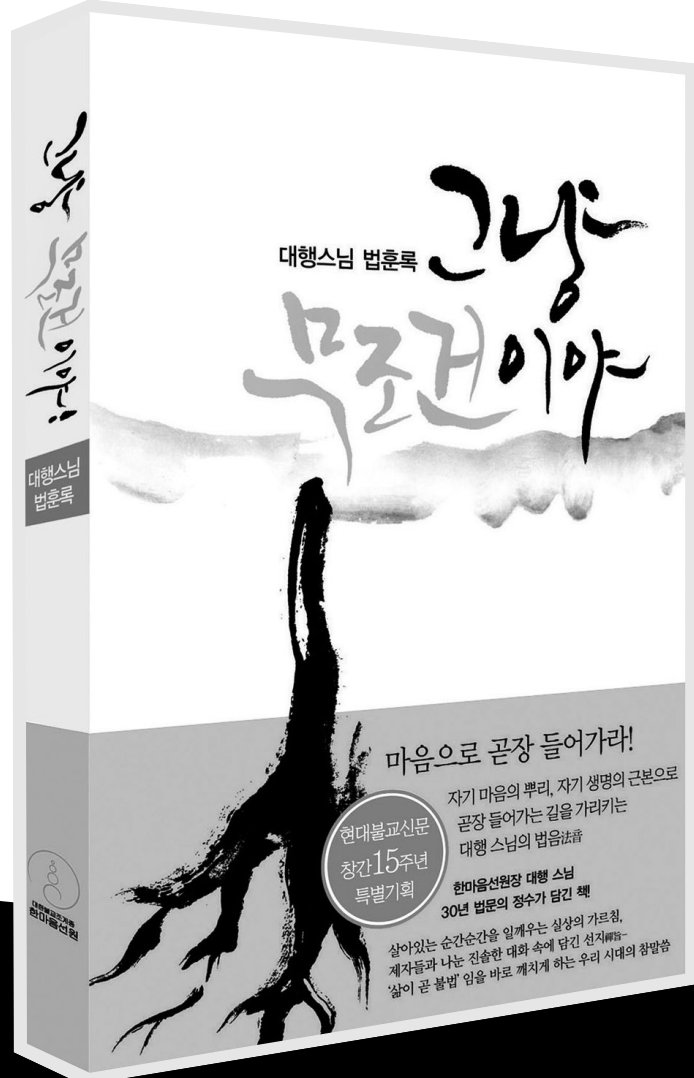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여여하게 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만법을 자동적으로 들이고 내게 할 줄 어찌 알았으리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보면 얘기하고 보면 말하고, 움직여 보면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고정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말했다 하면 바로 즉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다른 말 할 때는 바로 미래로 향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한 찰나 전, 한 찰나 후가 되죠. 우리는 찰나찰나 화(化)해서 변화하고 나투면서 끊임없이 이어 갑니다. 나투는 거는 움직여 나투는 뜻입니다. 이거 봤다가 저거 보고 하는 그 움직여 나투는 걸 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못해서 걸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로 살다가 소의 습을 놓지 못해서 도로 소로 태어나듯, 사람도 공부하려는 생각이 그냥 살다가 보면 회향을 잘못해서 중세계에서 살던 그 차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철 사는 데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진리를 알아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깨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불기동이 자기를 움직여 리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뚱이는 수레바퀴와 같이 불기동에 중심을 끼워서 돌아가니 그 불성은 항상, 움직여 리지 않아도 힘을 배 출해 줍니다. 우리는 이 옷을 벗을 때까지라도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통받지 않게 차원과 모습과 삶을 높여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을 또 건져 주게 되죠. 하여튼 마음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야, 다른 우주 세계도, 다른 은하계 세계도, 달과 별과 해를 다 자기를 삼아서 이 세상을 끝으로 둘러보며 끝으로 할 것입니다. 이 법사상과 원사상을 이론으로만 들어서 행한다면 아니 되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잘하든 못하든, 상대가 좋은 나쁜은,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거는 나쁜 것대로 놓되 한군데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온 구멍이 그 구멍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멍도 그 구멍이고, 더 나아간다면 그 자체도 다 없는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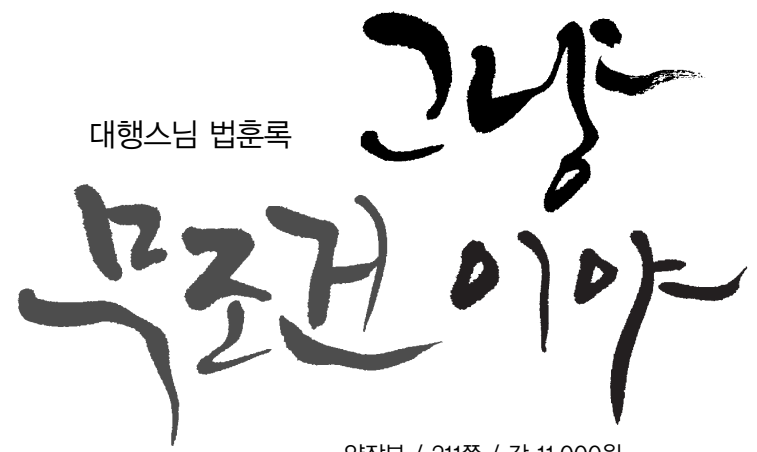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